



광명스피돔에서 스타트 라인을 출발하는 특선급 선수들. 올해 하반기 등급조정에서 슈퍼특선급의 기존 강자들이 대거 탈락하는 물갈이가 예상되면서 이 자리를 노리는 경쟁이 치열하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터줏대감들 이번...SS반 대규모 물갈이 예고

황인혁·정종진·정하늘 등 강급 위기
46연승 절대강자 임채빈 잔류 확실
‘승률 76%’ 정해민 승급 기대감 키워
인치환·정재원 등도 진출 유력 후보

2022년 하반기 등급심사가 4주 후 종료된다. 각 등급별로 승급과 강급 컷트라인에 걸린 선수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 경륜 최상위 등급인 슈퍼특선반(SS반) 진출을 두고 많은 2진급 강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일단 46연승의 절대강자 임채빈(25기)의 잔류는 확실하다. 그외 자리는 기존 슈퍼특선급의 터줏대감이던 황인혁, 정종진, 정하늘, 성낙송 등이 출전지나 성적부진 등으로 인해 강급위기에 몰리면서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슈퍼특선반 진출경쟁에서 한 발

앞선 선수로는 정해민(22기)이 있다. 6~8일 부산 특별경륜에 출전했던 정해민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SS반 진출에 가까워지고 있어 독하게 마음먹고 시합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 이런 마음다짐에 걸맞게 SS반인 황인혁을 금요예선, 일요일결승에서 연속 제압하며 3연승에 성공했다. 광명 4회차 결승, 부산 특별경륜 우승 등 21회 출전에 16승(승률 76%, 연대율 90%, 삼연대율 90%)으로 다승 2위에 올랐고, 평균 종합득점도 101.60으로 3위다.

비선수 출신으로 2012년 그랑프리에서 준우승까지 오른 인치환(17기)은 39세의 나이에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금, 토 경주에서 우승을 쟁겼고 그동안 경기 운영상의 약점으로 부진했던 결승에서도 2승을 수확하고 있다. 1회차 결승에서는 김포팀 후배들인 정재원, 엄정일을 2, 3착으로 불러들이는 짓히

기 우승을 올렸다. 4월10일 열린 14회차 결승에서는 SS반 진출 경쟁자인 정해민, 공태민, 양승원, 김관희를 3-4코너에서 앞서며 쌍승 237.3배, 삼쌍승 1653.1배의 고배당을 만들었다.

4회차 결승 4착이 유일한 입상실패일 정도로 요즘 인치환의 기세는 좋다. 현재까지 21회 출전에 14승(승률 67%, 연대율 76%, 삼연대율 95%)으로 다승 3위, 평균 종합득점 101.50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마크추입형 강자인 정재원(19기), 황승호(19기)도 SS반 진출 경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후보들이다. 정재원은 1월 9일과 23일, 3월6일 결승에서 2착한 데 이어 5월1일 결승에서는 인기순위 6위임에도 막판 직선주로서 추입으로 우승해 쌍승 112.7배, 삼쌍승 348.0배의 이변을 만들었다. 18회 출전에 우승은 5회로 많지 않지만 2착 10회, 3착 2회(승

률 28%, 연대율 83%, 삼연대율 94%)의 입상률로 평균 종합득점도 101.21을 기록해 단숨에 5위까지 상승했다.

황승호는 상승세가 가파른 다크호스다. 4월23일 대상경륜 준결승에서 정해민, 전원규, 성낙송을 모두 제압하고 승리한 데 이어 다음날 결승에서는 3착을 해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광명 결승서도 신은섭이 낙차하는 틈을 재빠르게 파고들며 준우승에 성공했다. 지난주까지 평균 종합득점 100.92로 8위를 기록하고 있던 황승호는 결승전 선전으로 더 올라설 전망이다.

예상지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은 “광명 6회차 결승 우승 공태민, 7회차 결승 우승 정종도, 4월 대상경륜 우승 전원규, 5월1일 광명 결승 준우승 양승원 등도 남은 기간 활약에 따라 첫 SS반 승급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후보들”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김종민, 개인통산 500승 ‘한국경정 새역사’



김종민

김종민(2기 A1 45세)이 사상 처음으로 개인 통산 500승을 달성했다. 김종민은 12일 19회차 2일차 15경주에서 1코스 출전에 인빠지기로 선두로 나선 뒤 버티기로 우승하며 대기록을 수립했다.

김종민은 경정선수 2기로 2002년 11월 미사리경정장에서 데뷔했다. 동물적 감각의 빠른 스타트와 강력한 선회력을 가졌고 승부에 대한 집념이 강해 최다 출발위반(15회)에도 불구하고 통산 50%(총 1101경주 출전)에 육박하는 승률을 올리고 있다. 현재 경정에서 승률 40%가 넘는 선수는 김종민과 심상철 뿐이다. 또한 154명의 등록선수 중 통산 400승 이상도 김종민, 김현태(438승), 김효년(414승), 박현성(413승), 어선규(400승) 등 5명뿐이다.

김종민은 대상경정도 최다 출전(40회)과 최다 우승(21회) 기록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쿠리하라배와 연말 그랑프리를 연속 우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사이클대회 경주 모습.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사이클대회 개막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사이클대회’가 15일 경북 영주 경륜훈련원에서 시작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아마추어 사이클의 경기력 향상 도모와 우수 신인 발굴을 위해 1999년부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올해는 12종목에 걸쳐 전국 남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와 남자 대학부 선수 등 86개 팀 434명이 참가한다. 대회기간 경륜훈련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15일 개막식에서 사이클 꿈나무 육성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 5000만 원을 대한자전거연맹에 전달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원년스타’ 권명호, 올 첫 특별승급으로 A1 재입성

경정 1기 백전노장, 7경주 연속 입상
스타트 감각 회복...대상경주 정조준



권명호

우승 2회, 준우승 5회를 기록하면서 A2로 승급했다. 이어 올해 15회차부터 19회차

기록할 경우 특별승급, 7경주 연속 5착 또는 6착을 기록할 경우 특별강급 하도록 정해져 있다.

권명호는 지난해 후반기 B1으로 시작했으나 42회차부터 47회차까지

에서도 우승 1회와 준우승 6회로 한 번 더 특별승급에 성공했다. 그동안 기대 밖의 모터와 불리한 코스를 배정받는 악조건도 있었지만 원년 멤버의 노련미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권명호는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경정 초창기 최고의 스타다. 우리나라에 경정이 시작된 2002년 초대 올원배 특별경정 우승자였고 2005년까지 대상경주 결승에 단골

로 진출해 우승도 차지하는 등 전성기를 보냈다. 많은 후배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격이 다른 조종술과 경주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다.

예상지 ‘패속정’의 임병준 팀장은 “권명호는 탁월한 경주 운영과 선회력에도 스타트 부담 때문에 경기력 난조를 보였으나 최근 스타트 감각이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 다음에 있을 대상경주 출전도 기대할 정도”라며 “최근 권명호를 비롯해 김현태 등 원년 강자들의 재도약이 경정 출범 때부터 함께 한 오랜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범 기자

롱타임노씨 어떤 브랜드 인가요?

WHAT? 살아 숨쉬는 수제도우로 만든 수제피자와 29가지 수제맥주를 맛보고 원하는 만큼 마시는 '셀프랩하우스'의 콜라보레이션.

수제피자

×

수제맥주

Q. 자동화시스템, 비싸지 않나요?

A. 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창업비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시스템과 만난다면 인건비와 각종 수당은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인건비
추가인원
+
야간수당

→

수익

수익

매장내 1명 이상의 인원절감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의무 등 기타 관리 비용 발생

인건비와 각종수당은
수익으로 다가옵니다.

Q. 롱타임노씨 어떤 브랜드 인가요?

A. 우리는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롱타임노씨의 시작은 외식창업 시장 속 경쟁력 없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없어지는 브랜드가 아닌 건강하고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맥주장인, 피자장인 그리고 운영장인(점주님)이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1899-1029

실제 매출 공개	
04-01 (월)	51만 2,178,730원
04-02 (월)	45만 2,495,080원
04-03 (월)	66만 2,435,340원
04-04 (월)	54만 2,042,680원
04-05 (월)	66만 3,142,490원
04-06 (월)	64만 3,286,600원
04-07 (월)	62만 2,276,860원
04-08 (월)	38만 2,366,940원
04-09 (월)	46만 2,056,320원
04-10 (월)	55만 2,390,000원
04-11 (월)	49만 2,470,000원
04-12 (월)	70만 3,468,000원

2층 매장의 높은 매출!!

75,299,020원

4년간 동배 1등 1

운영의 장인을 모집합니다.

셀프랩방식의 장점

원하는 종류

원하는 만큼

- 1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수제맥주를 조금씩 다양하게 매실 수 있다.
- 2 다양한 맥주들을 로스없이 소진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맥주시스템.
- 3 유행이 아니라 키오스크(자동주문)와 같은 시대적 흐름.